

아주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장 최기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안개가 걷히고 캠퍼스에서 활기찬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일상의 감사함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많은 기념일이 있는 달입니다. 특히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을 짊어 있는 그러나 겸손한 인성을 갖춘 실력 있는 인재로 길러 주시고, 아주의 인재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보내 드리는 다섯 번째 총장레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레터에는 개교 50주년을 맞은 기념비적인 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학교 발전을 위해 맘을 흘려 주신 모든 아주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교 50주년을 맞아 기념주간인 **ai Festival**로 다채로운 행사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타임캡슐 개봉식을 시작으로 전야제인 벚꽃축제, 50년사 출판 기념보고회, 50주년 기념식, 아주비전 5.0 선포, 노벨상 수상자가 참여하는 학술대회 개최, 지역 취약계층 시민들을 위한 의료봉사 행사까지 축제의 장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4월 12일 열린 개교 50주년 기념식은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전 세계에서 보실 수 있었고, 우리 학교의 미래 50년이 더 기대되게 만드는 자리였습니다. 연암관 강당을 가득 메운 내외빈을 비롯하여 교직원, 학생 및 동문들을 보며 저는 아주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과 이를 준비해 준 교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캠퍼스 곳곳에서 진행된 개교 50주년 기념주간 **ai Festival** 행사에 제가 모두 참석하여 현장 분위기를 함께 느껴 보았습니다. 특히 노벨상 수상자의 강연과 세계적인 미래학자가 참여하는 콘퍼런스를 통해 대학의 미래를 조망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사마다 자리를 가득 메워준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참으로 뿌듯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 학생 중에서 언젠가 노벨상 수상자가 탄생한다면 참으로 보람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세계적인 석학들과 교감했던 순간을 늘 마음속에 품고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분명 제 상상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준비해주시고 참석해주신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개교 50주년 기념주간 <ai Festival>



▲ 아주비전 5.0 선포



▲ 기념사하는 최기주 총장

▲ 개교 50주년 기념 명예의전당 개막



▲ Aju International Conference
패널 토론



▲ Aju International Conference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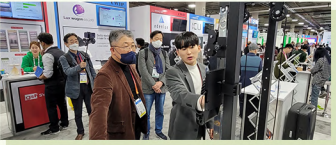


▲ 개교 50주년 기념 단체사진

총장 취임 이후 지속해 온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초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정보기술·가전 박람회 ‘CES 2023’에 참가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번 전시에서 LINC 3.0 사업단과 학생 창업 기업인 (주)라잇웨이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주)라잇웨이는 우리 학교 학생 창업 기업으로, 현재 아주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습니다. 파란 학기제를 통해 성장한 두 학생은 이제 CES를 통해 세계 무대에 데뷔한 셈입니다.

출장 중에는 미국 주요 대학(UC Irvine, USC, UCF, USF, UNLV 등)을 방문해 학생교류 및 연구 협력 방안을 모색 했습니다. 지난 1년간 해외 대학들과의 교류를 위해 노력한 결과 UC Irvine, USF, USC 등과 MOU를 체결하였고, 미시간대학과 위스콘신대학에는 올여름 학생들이 연수도 떠날 예정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재학 중 저희와 교류하는 해외 우수 대학에서의 수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더 넓은 꿈과 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01



▲ CES 학생창업 기업 (주)라잇웨이 부스 참관



▲ USF 관계자 미팅

3월에는 우리 학교 학생교류, 공동연구, 기술이전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스라엘 출장을 다녀왔고, 테크니온 공대, 이스라엘 혁신청, 와이즈만 연구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자매대학인 테크니온 공대와는 그동안 별다른 교류실적이 없었는데 이번 방문을 통해 Winter 프로그램 등을 새롭게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제1회 한-우즈벡 대학 총장 포럼 참가를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왔습니다. 한국대학 20여 곳, 우즈베키스탄 대학 40여 곳의 총장이 함께 모여 각국의 교육혁신과 미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와 함께 AUT도 방문하여 교육부 관계자, 타 대학 총장들과 둘러보며 우리 학교가 설립한 해외 교육 수출 사례에 대해 호평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학교는 50년 전 프랑스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학에서 도움을 주는 대학으로 성장하였고, 학교 건립이념인 ‘세계일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2월에는 대지진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튀르키예를 돕기 위한 성금액(1,615만원)을 대한적십자사 경기 지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02



▲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대 관계자 미팅



▲ 이스라엘 혁신청 관계자 미팅



▲ 한-우즈벡 총장 포럼



▲ AUT 방문 단체사진

기계공학과 강대식·고제성·한승용 교수님 연구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수면 도약 로봇을 개발했고, 이 내용을 담은 논문이 네이처 자매지이자 저명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3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와의 공동연구로 거미의 다리 기능을 모사해 민감도 조절이 가능한 의료용 센서를 개발했고, 전자공학 분야 최상위권 저널이자 네이처 자매지인 <npj 플렉시블 일렉트로닉스(npj flexible electronics)>에 온라인 게재됐습니다. 이제는 노벨상에 도전하는 우리 아주의 교수님들이 더 많아져야 하고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 희망합니다.

응용화학생명공학과 박기동 교수님은 고분자 생체 재료, 약물 전달 시스템 및 조직 공학을 연구하며 나노 공학 및 인공 장기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의생명공학원(AIMBE) 펠로우 선임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 번째로 선정되신 분인 만큼 우리 학교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아주의 위상을 드높이는 교수님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세계 초일류대학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저는 연구력 강화와 우수 교원에 대한 지원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구력 강화를 위해 기존 연구 실적을 일부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수립 중입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 각 학과의 특성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타 대학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부 기준을 정할 것입니다.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수교원 지원제도로써 책임 시수 감면제도 개편, 교수업적평가 결과를 반영한 성과급 지급 제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교류하고 학생들의 제반 여건을 개선하는데 지속적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Sound body, Sound mind'를 믿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사회에 나가서 공부와 체력 모두 1등으로 각인되었으면 합니다. 미국대학과 국내대학과의 여러가지 차이점 중에 체력의 차이도 있다고 봅니다. 체력을 통한 지속성의 담보는 학문과 사회생활에서 필수이며 운동을 즐길수록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주의인 체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일컬어 'ai for AAP (Ajou Athletics Program)'라 명명하고, 체육관 시설 개선, F45 등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마련함은 물론 우리 학교 체육관뿐만 아니라 학교 근처의 체육시설과의 제휴를 추진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체력을 기르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마도 1학기 내에 학생들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올 1월 아주대학교 병원은 미국 뉴스위크 2023년 세계 최고 병원(World's Best Hospitals) TOP 250 순위 발표에서 세계 119위, 국내 7위를 달성하여 지역사회에 공헌 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경쟁력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5월 1일에는 지난해 아쉽게 탈락했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추가 지정되어 경기 서남 권역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의료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추가 지정을 위해 애쓰신 의료원장님 이하 보직자, 교수님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와 더불어 저는 의대 정원은 물론 평택병원과 의료원 신축 등의 의과대학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역의 무게와 가치를 의대에 입혀 더욱더 의과대학이 바이오 클러스터의 핵심으로 수원 경기지역에 자리 잡도록 그 바탕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대학의 자랑인 의과대학은 세계속에 우뚝 서야 합니다. 우리 학교 간호대학은 지난 1월에 진행된 제63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총 72명이 응시해 100% 합격을 거두었고, 이는 2002년 첫 졸업생 배출 이후 단 1회만 빼고 매년 전원 합격의 놀라운 성과입니다. 간호대 학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학교는 두 가지 정부지원 사업에서 아쉽게도 고배를 마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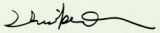
다부처(국토교통부, 교육부, 중기부) 공모사업인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은 대학 캠퍼스 내 유휴공간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기업 공간, 주거, 문화·복지시설을 복합 조성하고,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해 혁신생태계를 만드는 것으로 수원은 물론 아주대학의 새로운 방향성 정립에도 중요한 사업인 관계로 다수의 신증론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진하였습니다. 우리학교 토지이용 및 건물/용적률 등도 바꾸어 학교의 전반적 가치를 높일 수도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정말 아쉽게도 4월 중순에 있었던 캠퍼스 혁신파크 후보지 발표에서는 우리 학교가 고배를 마셨지만, 우리는 주저앉지 않고 그 문이 열릴 때까지 도전할 것입니다. 아주의 많은 구성원이 고생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애써 주신 기획팀과 산학협력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부가 시행한 2024학년도 첨단분야 정원 순증 신청 결과 우리 학교는 아쉽게도 정원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학교는 탈락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내년에는 반드시 정원을 순증 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학과 간의 경계를 허물고 첨단분야 융합을 통해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첨단분야 학과 신설 및 정원 순증을 위해 저는 어디든지 찾아가서 논의와 공유, 협력을 통해 구성원들의 이해를 끌어낼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 될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대학의 미래를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처음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도 원가 한번 해보자 라는 교내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고, 다양한 중앙정부의 대학 관련 프로그램에 도전하여 우리가 변하고 또 발전을 지향하며 개선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지역 및 교내 구성원들에게 확산시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기 시작이 엇그제 같은데 1학기도 어느새 중후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곧 여름방학이 찾아옵니다. 아주가족 모두 건강하고 즐겁게 여름 맞이 하시길 바라며 남은 1학기 힘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총장 최기주 



아주대학교
AJOU UNIVERSITY